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5.01~26.05.31)

□ 제5회 건설 인재 육성 우량기업 표창의 모집 개시 [5/11]

- 건설인재 육성우량기업 표창(주최 : 국토교통성, 건설산업인재확보·육성추진협의회(사무국: (일반재단법인) 건설업진흥기금))는 건설캐리어업시스템(CCUS)의 활용을 비롯하여, 기능이나 경험 육성, 젊은이나 여성의 입직·정착 촉진이나,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 등, 「건설산업의 담당자의 확보·육성」을 향해, 현저한 업적을 올린 기업, 단체에 표창을 하고, 그 노력을 칭찬함으로써, 담당자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함
- 표창 대상은 건설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목표로 우수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기업임. △ CCUS(능력 평가) 활용 등, 기술·경력 등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 △ 청년의 입직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하는 기업, △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워크스타일 혁신,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 △ 여성의 활약·정착을 촉진하는 기업
- 이번에 제5회째의 모집을 개시하며, 11월경에, 국토교통대신상,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 및 우수상을 결정할 예정임

□ 2026년 BRIDGE 신규 과제 8건이 결정 [5/11]

- 일본 내각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 소사이어티(Society) 5.0과의 가교 프로그램(이하 BRIDGE)'에서 국토교통성 소관의 8개 신규 시책이 최종 채택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도부터 각 정부 부처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혁신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이번 결정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거버닝 보드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회 구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새롭게 채택된 국토교통성 관련 8개 시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유형으로 분류되어 본격적인 예산 배분과 실행 절차를 앞두고 있음. 첫 번째는 '연구개발형' 시책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5억 4,900만 엔의 예산이 배정되어 첨단 인프라 기술의 실용화를 강력히 가속할 예정임. 두 번째는 '시스템 개혁형(표준 활용 가속화 지원 사업)'으로 역시 4개 사업이 채택되었고, 약 1억 6,700만 엔이 투입되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혁신 기술의 민간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
- '연구개발형' 시책은 △ 지역 인프라군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 구축기술의 전국 지자체에 사회실장(1억 2,500만 엔), △ XRAIN을 활용한 국지적 폭우 탐지 시스템의 고도화와 전국 확대(1억 600만 엔), △ 도로 인프라 오픈랩사업(1억 9,600만 엔), △ 토목설계데이터의 파라미터화 및 설계검토 자동화에 관한 기술 개발(1억 2,200만 엔)의 4건이 채택되었음
- '시스템 개혁형(표준 활용 가속화 지원 사업)' 시책은 △ 해외 진출을 위한 레질리언트 인프라의 국제표준화(3,000만 엔), △ 궤도관련 설비기술의 해외 진출 촉진 사업(3,200만 엔), △ 공항 내 자율주행 차량 운용 규칙 및 정보공유 체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9,000만 엔), △ 건설 분야의 실용적인 국내 기술 해외 진출 지원(1,500만 엔)의 4건이 채택되었음

- 이번 사업 채택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프라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확보된 지원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국가 인프라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방침임

□ **그린 구입법의 특정 조달 품목에 관한 제안 모집에 대해(공공공사) [5/11]**

- 일본의 그린 구입법(국가 기관 등의 환경 물품 조달 추진에 관한 법률)은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되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법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환경 부하가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법의 핵심 목적은 공공부문이 먼저 '녹색 소비'에 앞장섬으로써 민간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시장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초기에는 사무용품 위주였으나 현재는 자동차, 가전, 조명 등 수백 가지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환경성,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그린 구입법'에 따른 공공공사 부문의 특정 조달 품목 추가 및 판단 기준 재검토를 위한 대국민 제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이 제안 모집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환경 친화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그린 구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달 기본 방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정부는 건설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제때 반영하여 공공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있음
- 올해의 구체적인 제안 모집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특정 조달 품목의 신규 지정이나 기존 기술 평가 기준의 고도화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있음.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 삭감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을 우대하여 발굴할 계획임
- 접수된 제안 중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항목들은 지속 검토 품목군인 롱리스트로 특별 분류되며, 향후 제안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관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임. 참고로 일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제안 모집은 이번 공공공사 건과 분리되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친환경 조달 시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게 확대해 나갈 방침임

□ **2025년도 그린 인프라 창출촉진사업의 개발지원성과를 공표 [5/12]**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간기업의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25년도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지원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 이 사업은 자연환경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인프라에 접목하여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형성하고,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민간의 혁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자 마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성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방재 및 감재, 생물다양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진행된 총 4건의 혁신적인 그린 인프라 기술성과가 상세히 공개되었음. 4건의 과제는 △ 지역재를 활용한 우수저장기능에 관한 다면적 평가(공익재단법인 지방경제종합연구소), △ 녹지삼림관리영향 평가수법의 표준화(카지마건설주식회사), △ 고해상도 위성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도리 모니터링·평가기술(주식회사NTT데이터), △ 자연기능의 강화와 보완적인 구조에 의한 자기완결형 그린 인프라 유닛 개발(GI유닛연구공동체)임
- 이번 성과는 연구 단계에 머물던 기술들이 실제 사회 인프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관련 세부 자료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되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5년도 확정) [5/13]

- 2025년 수주총액은 126조 2,531억 엔이며, 전년대비 0.3%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87조 3,854억 엔(전년대비 6.6% 증가)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38조 8,676억 엔(전년대비 13.0%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87조 3,854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4조 5,509억 엔(전년대비 5.7%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62조 8,345억 엔(전년대비 6.9%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87조 3,854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22조 8,553억 엔(전년대비 5.8%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53조 6,642억 엔(전년대비 4.1%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10조 8,659억 엔(전년대비 22.9% 증가)임

□ 2025년도 말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 결과 [5/15]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 산업의 기초가 되는 허가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음. 이번 조사는 지난 1972년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실시되어 온 것으로, 일본 건설시장의 동향과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허가 업체 수를 집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으며, 이번 발표 역시 그러한 장기적 통계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도 말 기준 전국의 건설업 허가 업자 수는 총 483,823업체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23업체(0.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수치가 2023년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수치임. 신규 허가는 18,121개로 전년도 대비 1,957개(12.1%) 증가했으며, 허가 실패는 17,998개로 전년도 대비 6,151개(51.9%) 증가했음. 이 중 폐업신고는 8,273개이며, 갱신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실패는 9,725개임
- 일반건설업은 457,617개 (전년 대비 0.1% 감소)이며, 특정건설업: 50,511개 (전년 대비 1.6% 증가)임. 건설업 외 다른 산업을 운영하는 겸업업체는 144,994개(전체의 30.0%)임
- 취득업체가 많은 3개 업종은 비계·토공사업(184,825개), 건축공사업(140,967개), 토목공사업(130,833개) 순임. 취득업체가 적은 3개 업종은 청소시설공사업(372개), 착정공사업(2,216개), 소방시설공사업(16,075개) 순임

□ 장관관방 관청연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5/15]

- 국토교통성 관청연선부는 최근 건설업법을 위반한 동양샷타 주식회사(東洋シャッター株式会社)에 대해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지명정지 조치를 발표함

- 오사카부 오사카시 중앙구 미나미센바 2-3-2에 위치한 동양샷타 주식회사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체결했음
- 관청영선부는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 요령' 별표 제2 제 13호(건설업법 위반 행위)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명정지함

□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 2026 제안 모집 개시 [5/15]

- 일본 국토교통성은 주거분야의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차세대 주택 프로젝트의 기획제안 공모를 공식 시작했음. 이 사업은 민간의 혁신적인 주거 관련 기술들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실증 및 상용화 과정을 적극 견인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
- 이번 공모는 주택 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활용하고 해당 기술의 효과와 과제를 철저히 검증하며 올해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됨. 지원 유형은 주택 실용화를 위한 과제 실증을 수행하는 선도 타입과 실제 공급 주택에서 시장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장화 타입의 두 가지로 나뉘어 설계되었음
-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는 조사설계계획비, 건설공사비, 기술검증비 등 관련 비용의 최대 2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당 최대 3억 엔의 파격적인 국가보조금이 최대 3년간 지원될 예정임
- 기존에 채택된 프로젝트의 사례로는 △ 거주자의 바이탈에 연동된 에어컨 등의 자동제어 및 이상값 알림 서비스를 통해 거주자의 건강관리를 실현, △ 공기질 환경을 시각화하고 덕트식 중앙공조를 도입해 청소 횟수를 줄임, △ 입구의 원격 해제를 통해 재배달 감소를 실현, △ 지역 건설업체와 IoT 기기 제조사의 연계를 통해 IoT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데이터 수집 등을 수행 등이 있음
-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 오후 1시까지로 지정되었으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지정된 평가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들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토교통성은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채택 사업을 확정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공식 발표할 계획임

□ 건설종합통계(2026년 3월분) [5/20]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내 전반의 건설 경기 동향을 기성고 기준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공 통계 자료인 '2026년 3월분 건설종합통계'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음
- 이 통계는 건축착공통계조사와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 등 정부의 핵심 기초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월 산출되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각 공사별 계약 금액이나 착공 베이스의 수치를 실제 현장의 공정 진척도에 맞춰 월별 실제 공사 실적인 기성고(出来高)로 환산·추계하여 실질적인 주택 및 인프라 건설 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해 왔음

- 2026년 3월 기성 총계는 5조 6,14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함. 이 가운데 민간 기성 총계는 3조 1,81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공공 기성 총계는 2조 4,33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함
- 민간 기성 총계(3조 1,812억 엔)는 건축이 2조 3,169억 엔(전년동월대비 1.0% 증가), 토목이 8,643억 엔(전년동월대비 24.6% 증가)으로 구성되며, 공공 기성 총계(2조 4,335억 엔)는 건축이 5,698억 엔(전년동월대비 16.8% 증가), 토목이 1조 8,637억 엔(전년도월대비 2.5% 증가)으로 구성됨
- 이번에 확정된 최신 3월 통계 데이터는 정부의 공식 통계 통합 창구인 'e-Stat'을 통해 일반 국민과 산업계에 전면 공표되었음. 추계 방식의 특성상 매년 6월에 당해 연도 4월분 통계를 발표할 때 최근 확정된 건설 투자액 실적치와 최신 보정률을 반영하여 직전 3월분부터 과거 3개년 분량의 데이터를 소급 개정하는 절차가 수반됨